

#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유자녀 기혼남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만족도, 가족지원 프로그램만족도,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정보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Married Men/Women with Children

: Focused on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mily support facility satisfaction, family support program satisfaction, nurture and educ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Ju-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including local community's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safety, convenience, comfort, accessibility, exchange of neighbor satisfaction), family support facility satisfaction, family support program satisfaction and nurture and educ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ocal community's li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married men and women with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380 married men and women with children located Seoul, GyeongGi-Do, ChungCheongBuk-Do, and KyungSangNam-Do.

The results show that, first of all, related to general trend of role satisfaction and role strain, the subjects have higher experience of role satisfaction than role strain.

Secondly, the variables of social demography, such as monthly income, non-regular full-time working system, white collar occupation, number of children and level of edu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variables, such as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stability and satisfaction of neighbor exchange in liv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ole strain.

Thirdly, social demography variables, such as average monthly earnings, gender (male), non-regular part-time working system, satisfaction of stability in living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of convenience in liv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ole strain.

---

▲주요어(Key Words) :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유자녀 기혼남녀 (married men and women with children).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역할 만족도 (role gratification), 역할 긴장도 (role strain).

\* 이 논문은 2010년 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박주희 (E-mail: pjh@sungshin.ac.kr )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여성취업의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양립을 돕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모색은 여성 및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로 인해 육아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혼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박주희, 2005; 이주희 · 이은희, 2000). 현대사회에서의 기혼여성의 취업은 생계를 돕는 경제적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동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성권익의 향상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Fredrick-Goldsen & Scharlach, 2001; Graham & Graham, 2001; Hochschild, 1997). 더욱이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도 여성노동력을 새로운 노동인구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은 국제적 비교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평가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4.7%로 OECD 평균(61.3%)보다 6.6점 낮은 28위로 밝혀지고 있다(OECD, 2009). 그리고 전체 취업여성 중 미혼여성과 기혼 여성의 수 또한 매우 유사한 비율로 증가해가고 있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주요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돌봄의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의 지원 및 직장의 가족 친화 지원체제의 결핍 등에서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대사회의 절실한 요구와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취업가족들의 일-가족 양립을 돕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미흡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 직장,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해서 가족 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미흡할수록 기혼남녀들은 일-가족 갈등을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육아와 가정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대부분의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가사와 가족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이주희 · 이은희, 2000; Bullock, 1994; Hochschild, 1997; Park & Liao, 2000).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63.7%가 육아와 가사 때문에 취업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ttp://www.molab.go.kr>, 2010).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장애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육아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여성취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함께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직장가정 두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 우리 정부는 돌봄에 대한 사회환경적 지원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12월 14일에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촉진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의 지원, 가족 친화시설의 조성, 지역사회 가족 돌봄환경 촉진, 가족친화문화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사회환경 기본계획'을 조성하여 국가차원의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접근은 가족과 일 두 영역의 기능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어졌다. 즉, 기혼여성들의 시간의 사용과 역할수행 등은 육아 및 돌봄을 위한 기회비용과 취업을 위한 기회비용의 상대적인 관계 및 기회 선택으로 이해되었다.(Cabanero, 1978; Smith & Ward, 1985; Quizon, 1978). 그리고 가족 돌봄 기능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가족 돌봄의 기능을 용이하게 돕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이세인 외, 2007; 유계숙, 2010; 최성일 · 유계숙, 2006).

그러나 많은 국내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또한 높다고 한다(OECD, 2009; 류연규, 2010; 손기태 · 김민희, 2008). 즉, 여성들이 육아의 책임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을 포기하거나 취업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Becker, 1993; Mincer & Polacheck, 1974) 및 통념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오히려 출산율을 높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함축하는 것은 이제 돌봄의 책임은 가족-일 양립차원의 사회적 돌봄을 넘어서 사회적지원에 의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그것은 가족의 부담의 완화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가족 내 관계 및 역할 수행을 돕는 직장의 가족친화적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서정수 · 조희금, 2010) 기혼남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에게 부과된 가족복지의 전적인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탈가족화' 노력이 지역사회 전체 기혼남녀의 역할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지원은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간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가족 돌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양육 및 가정에 대한 역할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의 몫으로 강조하는 문화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가족 돌봄의 역할을 수행에 따르는 심리적 역할 긴장감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 본다.

## 2. 연구의 목적

역할 긴장도에 관련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일-가족에 관련하는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역할 긴장감을 분석하는 것으로 취업주부들이 경험하는 불이익에 초점을 두었다(이주희·이은희, 2000; 정순희, 2001; Coser, 1974; Goode, 1960; Holmstrom, 1972; Karasek, 1981).

그러나 본 연구는 탈 일-가족 양립의 관점에서 가족 친화적 환경의 지원과 그 만족도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인 기혼남녀들이 경험하는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를 분석하여 가족 돌봄의 부담완화를 돕는 지역사회차원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가족 친화 생활환경적 요소들인 지역사회의 거주환경(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의 만족도와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활정보 접근성 등의 요소가 유자녀 기혼남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가족 친화 생활환경 지원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의 개념 및 핵심요소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의 개념은 가족 친화적 환경이 가족의 총체적인 삶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 목표의 이상적 한계가 무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 목표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일반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여성의 취업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 내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가족성원 각각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사회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성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녀양육에 관련된 가족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등의 그 대상 및 범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법적 정의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제 4항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여건이 갖추어

진 마을환경"으로 정의했다.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차원에서 가족들의 돌봄의 요구들을 수용하고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돌봄의 사회적 역할의 수행의 제반의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모델 개발연구(2009)에 따르면 가족친화 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살고 싶은 마을"로 정의했고,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가족의 공존과 가족에게 필요한 환경 및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행정과 지역사회가 지원 되는 것"으로 가족친화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들에 기초해서 가족친화 생활환경을 "일과 가정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으로 가족 돌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그 핵심요소들로 거주환경, 가족지원시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양육과 교육지원, 가족 친화적 생활정보의 유용성 등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사회적 돌봄의 교류 및 공조를 돕기 위한 환경과 서비스 및 제도적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생활환경의 전제조건이 되는 지역사회의 철학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조건들에 기초해서 '통합'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소통과 협력' '이타주의 실천' 등의 주민주도 및 협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WHO 건강도시 요건; 보건복지부, 2009; 차성란, 2010). 즉, 첫째, '통합'은 가족친화 생활환경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통합적 기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의 필요성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추구해온 개인적 웰빙 차원의 삶을 넘어서 지역사회 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두는 생활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우리의 개인적 사랑과 관심, 배려 등을 주변인, 세계, 생태계로 확대시켜나갈 때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지역복지가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이다. 셋째, '소통과 협력'은 '이상과 같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주민 간에 그리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호공조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이다. 넷째, '이타주의 실천'은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은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주민들이어야 할 것이며 이타적 삶의 방식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2009)의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우리지역사회의 구성요소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 기능이 복잡해져가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1) 영유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가족들을 위한 생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2)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3)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건강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 (4) 주민들 간의 소득과 문화적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는 것, (5)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6) 마을 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생태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 등의 여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친화형 마을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 주민참여와 연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 찾기, 지원중심의 행정(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차성란 (2010)은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의 핵심 목표로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 내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지식, 정서적 자원들이 교환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돌봄의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교환되고 상호부조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기능을 자주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홍성아 외(2007)는 '은평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주민 욕구평가에서 지역사회의 아동, 성인, 노인 등의 대상을 위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원칙으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즉, '안전성'은 안전한 보행거리, 평탄한 거리 등의 생활환경의 물리적 안전성과 지역사회 주민인 아동, 여성, 노인 등이 폭력과 학대 등의 범죄 등에 노출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문화적 안전성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편리성'이란 아동의 편의성, 요구별 서비스 충족을 위한 편리성,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접근성'은 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이용의 시간적 접근성, 서비스 이용의 비용의 접근성을 포함하였다. '환경친화성'은 환경의 쾌적성과 관련하는 개념으로 공원, 녹지 조성, 녹색 교통체계의 증진,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성'의 개념을 '쾌적성'의 개념과 호환하여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구성요소들을 거주환경(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활정보 접근성 등의 요소들로 분류하였다.

## 2. 역할수행의 이해

### 1) 사회적 역할

역할이론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의 사회적 연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역할들은 가치, 태도, 기능, 임무, 행동 등과 관련된 각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규범적 기대이다(Woodworth, 1934). 또한 Goode(1960)는 각 개인들의 역할수행은 사회문화적 제도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역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의 역동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단일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기대, 실제행동, 행동양식, 그리고 일련의 부수하는 것들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역할수행은 누군가가 특정 문화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른 일련의 역할들에 종사함으로써 다중역할을 점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oode, 1960; Hess, 1981; Merton, 1957). 이러한 역할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돌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준비(provision)는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다중역할의 수행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기혼남녀들은 다중역할의 수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일차적 중심이 되는 가족 돌봄의 영역과 직업역할, 사회적 역할, 개인적 역할 등 다양한 역할들의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 또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다중역할 수행의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Campbell, Concerse & Rodgers, 1976; Goode, 1960).

### 2)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

다양한 역할 수행의 효과, 즉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역할 만족감과 역할 긴장감에 대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논쟁되어졌다. 즉,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연속모델(Continuum Model)과 최근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유형적 모델(Typology Model)이다. 연속모델의 논리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한다면 그는 심리적 만족감은 경험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연속모델의 연구자들은 또한 각기 다른 견해에서 두 가지 결과를 주장하였다. 다중역할 수행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Coser, 1974; Goode, 1960; Holmstrom, 1972). 즉, 사람들의 에너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증가 할수록 긴장감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Goode(1960)는 역할 긴장감을 4가지 형태로 설명하였다. (a)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하는 요구들에 따른 긴장감, (b)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요구들에 의한 역할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무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c) 동일한 역할의 다양한 의무들의 비 일관적인 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

(d) 일련의 역할들을 수반하는 역할수행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 긴장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상의 정의에 따른 4가지 긴장과 갈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반면에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Marks, 1997; Seiber, 1974; Thoits, 1983). 즉, 사람들은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완수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심리적 충족감을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Seiber(1974)는 긍정적인 효과인 역할 향상을 다중역할의 집적으로부터 끌어낸 만족도이며 이는 (a) 역할특권, (b) 삶의 전반적 안정성, (c) 생활을 위한 자원의 유용성, (d) 자아에 대한 사적 만족감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 향상과 역할 만족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상의 4가지 향상과 만족의 개념을 포괄하여 역할 만족도를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자들은 유형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사람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독립적인 차원의 공존하는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그 심리적 경험을 약하게나마 연합할 수 있으며, 상호배제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박주희, 2005; Gerson, 1985; Park & Liao, 2000). 유형적 모델을 지지하는 Gerson(1985)은 미국 뉴욕시 거주자들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혼여자 대학원생들과 전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자대학원생들은 학업과 가족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 결과로 전업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혼여교수 100명과 전업주부 100명을 비교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역할 만족감과 역할 긴장감을 분석한 Park과 Liao(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역할에 종사하는 기혼여교수들의 경우 전업주부들에 비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주희 (2005)는 우리나라 유자녀 도시 취업모 265명을 대상으로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취업모들은 일과 가족의 역할 수행으로 인해 매우 유사한 수준의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형적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은 기혼 취업여성들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독립적인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과 가정이 잘 양립되도록 지원될 수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3)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편, 역할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역할요구와 자원의 통합적 접근에 설명되어질 수 있다. 다중역할 수행과 관련한 역할요구와 자원의 상호작용은 역할 긴장감과 역할 만족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역할 만족감과 역할 긴장감은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경험이므로 취업과 비 취업에 관계없이 기혼남녀들의 일상의 생활에서의 경험이라고 본다.

즉, 가족 돌봄의 제공자가 경험하는 긴장감은 돌봄의 요구들(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기능적 제한 점)과 돌봄을 위한 자원들(가족과 직장의 자원, 사회적 자원의 유용성)사이의 비균형적 기능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녀들의 경우, 돌봄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가족, 직장, 사회 환경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이주희 · 이은희, 2000; Kelly · Voydnff, 1985; Ronis, 1987). 특히 직장과 사회 환경적 자원들의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양육의 문제를 안고 있는 취업부부들의 경우라면 그들 각각의 역할 수행의 요구들은 자녀의 연령,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물질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 및 생활환경적 지원요소들에 따라 각기 그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관련된 변인은 부양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 노인부양의 유무 등이며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변인은 근무시간, 직무수행의 어려움 등과 같은 요인들로 알려지고 있다. 부양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길수록(이주희 · 이은희, 2000; Karasek, 1981), 직무수행이 어려울수록 남녀 모두 역할 수행의 요구수준들은 더욱 높아지고(장혜경 외, 2005; Karmer & Kipings, 1995) 역할 긴장감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박주희, 2005; Park & Liao, 2005).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관련하는 중요한 자원변인들은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정과 직장의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제도적 지원체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용이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관련연구들은 가족들이 낮은 수준의 경제적 자원을 갖는 경우 (Park & Liao, 2000; Ross, et al, 1990)와 가족 성인들로부터 돌봄을 역할 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더욱 높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박주희, 2005; Park & Liao). 또한 효과적이고 더욱 높은 수준의 직장의 가족친화적 정책들은 역할 긴장도를 완화시키는데 공헌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박선영 · 윤덕영, 2005; Willam & Alliger, 1994).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기혼의 정규직 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한 유계숙(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도의 수준은 자녀 출산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즉,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도가 높은 직장에 소속한 근로자일수록, 또는 소속직장의 가족 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효과적인 사회 환경적인 지원체제의 조성은 역할 긴장도를 감소시키고 역할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Orthner & Pittmann, 1996).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자녀 기혼남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및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자녀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자녀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역할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유자녀 기혼남녀들로 의도적으로 표집 되었다. 2010년도 4월 16일에서 2010년도 4월30일까지 조사원이 유의적 추출방법에 의해 서울시 및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역의 유아방, 유아학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구청, 종교기관 등을 방문하여 유자녀 기혼남녀들에게 총 6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미회수 및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총 38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에 제시된바와 같이 조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와 성별, 본인의 연령, 소득, 종교 생활 유무, 가족의 학력, 배우자의 학력,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본인의 고용형태, 본인직업, 배우자의 직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8.8%였으며, 여자가 81.3%로 표본의 성별 편파성을 나타내었다. 조사 참가자의 연령은 30대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6%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인 53.5%, 400-600만원 미만 27.1%, 600만 원 이상 10.4%, 200만 원 이하가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에 대해서는 종교생활을 '한다'가 37.8%, '하지 않는다'가 60.4%였다.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만으

로' 구성된 가족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 부부와 자녀의' 구성이 11.5%로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조사 참가자는 '대졸이상'이 71.4%였으며, 배우자는 '대졸이상'이 74.0%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83명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6-16세 미만이 35.7%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가자의 고용 형태는 전일제 정규직 근무제가 40.9%였다.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해서는 조사 참가자의 경우 전업주부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 농림어업, 기능, 단순노무직이 28.9%, 전문직 13.3%, 서비스 판매직 12.5%로, 관리직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자영업, 농림어업, 기능,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59.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판매직 10.9%, 관리직 8.6%. 전문직 8.6%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문항은 조사 참가자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종교생활의 유무, 가족의 형태, 학력, 배우자의 학력,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고용형태, 직업, 배우자의 직업 등 조사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12개 문항의 배경질문을 포함해서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를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거주환경 만족도를 측정한 20개 문항,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8개 문항,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8개 문항,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4개 문항, 생활정보 접근성 9개 문항 등 총 85개 문항을 포함한다.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문항은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Gerson(1985)이 고안한 문항을 토대로 박주희 (2010)가 역할 만족도 12문항과 역할 긴장도 1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가 이용되었다. 문항의 재구성은 30명의 전문가들에 의한 '델파이 기법' 방식으로 검토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서 전반적 내용이 수정되어 재구성되었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총 24문항의 총합점수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척도 모두 총합점수 12점에서 48점의 범위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와 긴장도를 나타낸다. 역할 만족도의 척도 신뢰도는 역할 만족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 .86으로 검증되었다. 역할 긴장도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 .84로 검증되었다.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접근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본 연구의 거주 및 생활지원 환경, 교육 및 양육환경, 소비자 생활정보 등 각 독립적 영역에서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 되었다.

거주환경 만족도는 신화경 (2010)에 의하여 개발된 거주환경

<표 1> 연구대상 기혼 유자녀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2	18.8
	여자	312	81.3
본인의 연령	20대	19	4.9
	30대	229	59.6
	40대	125	32.6
	50대	7	1.8
	50대 이상	3	0.8
소득	200만원 이하	29	7.6
	200-400만원 미만	205	53.4
	400-600만원 미만	104	27.1
	600만 원 이상	40	10.4
종교생활	한다	145	37.8
	아니다	232	60.4
가족의 형태	부모 + 자녀	305	79.4
	조부모 + 부부 +자녀	44	11.5
	부부 +자녀 +친척	5	1.3
	한 부모 +자녀	20	5.2
본인의 학력	중학교 졸업	4	1.0
	고등학교 졸업	105	27.3
	대학교 졸업	235	61.5
	대학원 이상	39	10.2
배우자의 학력	중학교 졸업	6	1.6
	고등학교 졸업	71	18.5
	대학교 졸업	236	61.5
	대학원 이상	48	12.5
자녀수	평균 1.83(0.74)		
막내자녀 연령	6세 이하	204	53.1
	6-12세	137	35.7
	12세 이상	33	8.6
본인 고용형태	전일제 정규직	157	40.9
	시간제 정규직	29	7.0
	전일제 비정규직	21	6.8
	시간제 비정규직	26	6.8
	해당 없음	128	33.3
본인 직업	전문직	51	13.3
	관리직	10	2.6
	서비스·판매직	48	12.5
	전업주부	136	35.4
	자영업, 농림어업, 기능, 단순노무직	111	28.9
배우자 직업	전문직	33	8.6
	관리직	33	8.6
	서비스·판매직	42	10.9
	자영업, 농림어업, 기능, 단순노무직	227	59.1
	무직	8	2.1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 등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고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의 범위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거주환경 만족도를 나타낸다. 거주환경 만족도 전체척도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 = .89로 검증되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쾌적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 .66, 안전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 .80, 편리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 .83, 접근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 .78, 이웃과의 교류는 Cronbach's  $\alpha$ 계수 = .80 등으로 각각 검증 되었다.

가족지원 시설 만족도는 신화경(2010)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거주지 내의 주간보육시설, 시간제 및 야간제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노인돌봄시설, 노인 복지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등의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 .92로 검증되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신화경 (2010)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 및 출장간호 서비스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지원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가족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영유아, 아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만족도를 질문하는 총8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 .92로 검증되었다.

교육 및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최혜영(2010)에 의해서 개발 되었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양육 및 교육시설(양육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자녀를 위한 과외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성,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성, 지역사회 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전반적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 .79로 검증되었다.

생활정보 접근성은 심영(2010)에 의해서 개발 되었으며 정보의 충분함, 내용의 다양성, 정보의 필요성, 시설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내용,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얻기 쉬움, 최신정보, 정보의 도움,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가 등의 접근성을 질문하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범위는 9점에서 36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생활정보 접근성 척도 신뢰는 Cronbach's  $\alpha$ 계수 = .89로 검증되었다.

###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혼 유자녀 남녀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일반적 경향,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 보았다.

셋째, 기혼 유자녀 남녀의 일반적 특성과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 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이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유자녀 기혼남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및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 정보 접근성의 일반적인 경향

#### 1)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일반적인 경향

<표 2>에 따르면 역할 만족도의 경우 평균점수 1점에서 4점 범위에서 2.65점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긴장도의 경우 평균 점수 1점에서 4점 범위에서 2.2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 유자녀 남녀들은 역할 만족도가 역할 긴장도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역할만족도 문항 중 '사적생활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과, '특권을 지니게 되는 것', '소비생활'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긴장도의 문항 중 '사적 시간의 부족', '자기중심적인 삶', '역할 수행의 부족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의 관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할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역할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의 일반적인 경향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점수 1점에서 4점 범위에서 거주환경 만족도의 전체점수는 2.5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2.49점,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2.39점,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2.77점으로 로 가장 높았으며,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2.57점,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 2.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시설 만족도는 2.77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64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는 2.49점으로 나타났



<표 2>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일반적인 경향

역할만족도 문항 (N=379)	평균 (Means)	표준편차 (S.D)	역할 긴장도 문항 (N=380)	평균 (Means)	표준편차 (S.D)
자신감	2.78	0.50	사적 시간의 부족	2.63	0.67
리듬 있는 생활	2.77	0.52	자기중심적인 삶	2.51	0.74
타인들로 부터의 존중	2.76	0.47	역할 수행의 부족함	2.49	0.61
활력	2.75	0.50	사교를 위한 기회부족	2.34	0.73
다양한 삶의 경험	2.69	0.55	타인들의 지나친 역할기대	2.23	0.63
가치와 의미 있는 삶	2.68	0.58	긴장감과 불안	2.19	0.68
새로운 기술 습득	2.65	0.66	자아 정체감에 대한 갈등	2.18	0.68
자아존중	2.62	0.55	복잡한 생활	2.17	0.73
평안한 생활	2.61	0.61	피로함	2.09	0.68
사적 생활을 위한 생활	2.59	0.61	감당할 수 없는 일들	2.03	0.64
특권	2.52	0.60	일의 순위에 대한 갈등	2.02	0.65
소비	2.46	0.64	죄책감	2.01	0.72
전체 역할만족도 평균	2.65	0.56	전체 역할긴장도 평균	2.24	0.74

\*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역할 만족도와 더욱 높은 역할 긴장도를 나타낸다.

<표 3>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상관관계

구분		역할 만족도 (N=379)	역할 긴장도 (N=380)
역할 만족도	Pe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 379	1	0.29 .000
역할 긴장도	Pe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 380	-0.29 .000	1

\*p<.05 \*\*p<.01 \*\*\*p<.001

<표 4>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의 일반적 경향 (N=380<sup>1)</sup>)

분류		평균	표준편차
거주환경	안전성	2.49	.57
	편리성	2.39	.59
	쾌적성	2.77	.58
	접근성	2.39	.49
	이웃과의 교류	2.39	.63
	전체	2.48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2.77	.53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2.64	.68
교육 및 양육환경 만족도		2.49	.81
생활정보 접근성		2.47	.50

1)가족지원시설 만족도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이용응답자만 분석에 포함시킴

\*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역할 만족도와 더욱 높은 역할 긴장도를 나타낸다.

다. 생활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2.47점으로 나타났다.

2. 유자녀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요소가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역할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환경의 안정성 만족도( $\beta=.28$ ), 월평균소득( $\beta=.18$ ), 고용형태( $\beta=.18$ ), 본인학력( $\beta=.16$ ), 직종

<표 5>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역할만족도	
	B	$\beta$
월평균 소득	.03	.18*
고용형태 <sup>1)</sup>	.02	.18**
직종 <sup>2)</sup>	.11	.15**
자녀수	.05	.11*
본인학력	.09	.16**
거주환경 (안정성)만족도	.15	.28***
거주환경 (이웃교류)만족도	.07	.14*
가족시설 만족도	.08	.14*
constant	1.305	
R <sup>2</sup>	.359	
F값	16.63	

\*p<.05 \*\*p<.01 \*\*\*p<.001

1) 고용형태 : 1: 전일제 비정규직 0: 기타직종

2) 직종: 1; 화이트칼라 직종, 0: 기타직종

<표 6>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역할만족도	
	B	$\beta$
월평균 소득	-.07	-.27***
성별 (남성) <sup>1)</sup>	.15	.14*
고용형태 <sup>2)</sup>	.34	.19**
거주환경 (안전성)만족도	-.12	-.17*
거주환경 (접근성)만족도	.10	.12*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19	-.24***
constant	3.08	
R <sup>2</sup>	.209	
F값	10.88	

\*p<.05 \*\*p<.01 \*\*\*p<.001

1) 성별 ; 1: 남성, 0: 여성

2) 고용형태 : 1: 시간제 비정규직, 0: 기타

( $\beta=.15$ ), 거주환경의 이웃교류만족도( $\beta=.14$ ), 거주시설만족도( $\beta=.14$ ), 자녀수( $\beta=.11$ )로 나타났다<표 5>. 즉, 거주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고용형태가 전일제 비정규직일수록, 본인학력이 높을수록, 직종이 화이트칼라 직종일 경우, 거주환경의 이웃교류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40%로 나타났다.

3. 유자녀 기혼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역할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가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역할 긴장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월평균소득( $\beta=-.27$ ),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beta=-.24$ ), 고용형태( $\beta=.19$ ), 거주환경의 안정성 만족도( $\beta=-.17$ ), 성별( $\beta=.14$ ), 거주환경의 접근성 만족도( $\beta=.12$ )로 나타났다<표 6>. 즉,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시간제 비정규직일수록, 거주환경의 안정성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성인 경우 그리고 거주환경의 접근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21%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와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유자녀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생활환경적 요소들인 지역사회 내의 '거주환경의 만족도'와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활정보 접근성' 등의 요소가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제까지의 정책 목표들이 여성의 취업과 일-가족 양립을 위해 발생하는 문제와 사회 환경 내의 돌봄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취업, 비 취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녀를 두고 있어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갖는 지역사회 유자녀 기혼남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련해서 연구대상 남녀들은 역할 긴장도에 비해서 역할 만족도를 더욱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역할 긴장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에 대한 연속모델의 주장 중 '사람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의견 (Marks, 1997; Seiber, 1974; Thoits, 1983)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에서 긴장감 및 스트레스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여성들의 '자아실현'의 취업동기가 중요하게 반영된 것이라 본다. 즉, 사람들은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들(이주희·이은희, 2000; 정순희, 2001; Coser, 1974; Goode, 1960; Holmstrom, 1972; Karasek, 1981)과는 달리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역할 수행의 과정에서의 돌봄의 요구들과 돌봄을 위한 자원들 사이의 균형적 기능을 잘 유지시킨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역할만족도를 경험하는 문항의 순위별 결과에 따르면 '사적생활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특권을 지니게 되는 것', '소비생활'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는 문항의 순위별 결과에 따르면 '사적 시간의 부족', '자기중심적인 삶', '역할 수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며, 가족 성원들을 위한 충분한 돌봄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최근 맞벌이부부들은 역할 수행을 위한 심리적 요인 보다 실행적인 요인에 관련해서 더욱 낮은 긴장감을 초래한다는 박주희(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그것은 맞벌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에 대한 문화적, 개인적 동기의 변화를 중요하게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65.5%가 맞벌이 가족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돌봄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기대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한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 부인의 취업으로 가족 돌봄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맞벌이 부부들의 죄책감은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잘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생활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맞벌이 가족의 질적 삶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및 양육 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거주환경 만족도' 중 쾌적성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환경의 물리적 요소들에 비해 지역사회 성원들 간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측면의 만족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의 유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지식, 정서적 자원들이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사회적 돌봄의 자발적 서비스 교환과 상호부조의 기능이 원활이 수행되는 것은 가족 친화적 환경의 핵심요소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공동체적 의식과 주민 상호간의 교류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즉,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교류의 촉진은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의 욕구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차성란, 2010).

또한 가족지원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교육 및 양육 환경 만족도와 생활정보 접근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5년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도입과 함께 지역사회내의 가족지원 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들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활향상의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가족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계 또한 잘 드러내고 있다. 질적 양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생활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생활정보의 접근성 또한 현대가족의 기능화에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생활정보의 효과적 보급과 적용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본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이 높고, 전일제 비정규직 및 화이트 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 본인의 학력이 높은 경우, '거주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거주환경의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역시 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인 소득과 학력등과 같은 자원 요소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화이트 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업적 안정성이고 소득의 수준이 또한 더욱 높아 심리적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일제 비정규직에 있는 경우 더욱 높은 역할 만족감을 경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직업적 안정과 관련해서 심리적 만족이 적을 것으로 이해되어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일제 비정규직의 직종일수록 정규직에 비해서 직무수행에 관련한 부분에서 업무의 복잡성이 덜할 경우를 가정할 때 직무수행의 수월함이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비정규직' 종사자가 더욱 높은 역할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더욱 정밀한 검증을 요구한다.

한편, 자녀의 수가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의 요구가 높아지고 그 만큼 일-가족 양립과정에서의 갈등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겠다. 즉, 저출산 현상과 함께 현대가족의 자녀의 수는 한 자녀 또는 많은 경우 두 자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의 요구와 관련해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양육 경험이 숙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양육의 부담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또래 형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자녀와 함께 놀아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자녀일 경우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이 경험도 더욱 숙련된 터이고,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충족감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환경 요소로는 '거주환경 중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 등의 아동, 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사회적 안정성의 욕구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때 역할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돌봄의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교환되고 상호부조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위협으로부터도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들 간의 자발적인 교류는

안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남성들의 경우, 시간제 비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역할 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역할 긴장도가 낮았으며, 거주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이 높을 때 역할 긴장도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역할 긴장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인 소득과 고용형태등과 같은 자원 요소들은 역할 긴장도와도 밀접하게 관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남성들이 더욱 높은 긴장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 참가자의 81.3%가 여성인 성별 편파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성별의 영향과 관련해서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정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족지원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역할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한 결과는 지역 사회주민들의 자발적 가족친화적 환경으로의 자발적 통합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거주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 긴장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Fredrick-Goldsen & Scharlach, 2001; Kelly · Voydnff, 1985, Romis, 1987)에 비추어 볼 때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다.

본 연구에서의 거주환경의 접근성은 문화 공간 및 보육 및 교육시설, 가족지원 시설, 놀이터 등의 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질문되었다. 이러한 가족 지원 시설 및 문화공간이 거주지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가족들이 질적 삶을 향유하는 것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돌봄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본다면 아동 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 또는 놀이터 등이 가까이 있을수록 돌봄을 제공해야 할 기회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그만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어 역할 긴장감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생활환경적 지원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와 관련해서 '시간의 결핍', '특권', '경제적 만족감' 등과 같은 역할 수행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족 돌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 비해서 더욱 낮은 역할 만족감과 역할 긴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문화적 기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부가 맞벌이로 돌봄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실제적 수행에 관련한 기능에서 더욱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탈 일-가족 양립'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원체제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으로 거주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안전성은 지역주민의 교류와 관심, 상호부조와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 간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본다.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2009)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가족지원 센터인 지역사회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연대 활동의 기능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셋째, 이상과 같이 제안된 과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문적 업무담당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족친화형 생활환경의 조성은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계획된 지역사회조성을 위해 사업을 전개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각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주민자치조직, 복지기관, 단체, 행정체제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기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화된 전문적 업무담당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류연규 (2010). **복지국가의 탈 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박선영, 윤덕영 (2005).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박주희 (2005). 취업주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및 역할 만족도와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29-45.

박주희 (2010).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중역할 수행의 효과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5-19.

서종수, 조희금 (2010). 일-생활균형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비영리기관 조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95-104.

손기태, 김민희 (2009). 저출산 국제비교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9)**, 2-9.

이송지의 (2009).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이세인, 이숙현, 권영인 (2007). 가족의 지원 및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사무직 취업모의 일 - 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9-57.

이주희, 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과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유계숙 (2010).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89-96.

정순희 (200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취업중단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35-45.

장혜경 외(2005).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차성란 (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최성일, 유계숙 (2006).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 인적자원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로모형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26.

홍승아 외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모형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Becker, G.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2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llock, S. (1994). *Women and Work*. London: Zed Books Ltd.

Cabanero, T. A. (1978). "Shadow Price" of children in Languna Households. *Philippine. Economic Journal*, 17, 62-87.

Coser, L. A. (1974). *Greedy Institutions: Parents of undivided commitments*. New York: the Free Press.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

Gerson, J. M. (1985). Women returning to school: The consequence of multiple roles, *Sex Roles*, 13, 77-92.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483-496.

Fredriksen-Goldsen, K. I., & Scharlach, A. E. (2001). *Families and Work: new direc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aham, A., & Graham, C. (2001). *Families, households and society*. New York: Palgrave Oxford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 R. (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olmstrom, L. L. (1975). *The Two-Career Family*. Cambridge, MA: Schenkam.

- Kramer, B. J., & Kopnis, S. (1995). Elder care and work role conflict: Toward on understanding of gender differences in care giving burden. *The Gerontologist*, 35(3), 340-358.
- Karasak, R. (1981). *Job socialization and job strain: The implications of two related psychological mechanism for jon design*. In Gardell, B., & G. Hohanson, (eds). Workinglife. Chichester, England: John Willy & Sons.
- Kelly, R. F., & Voydanff, P. (1985).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working parents. *Family Relations*, 34, 357-374.
- Marks, S. R. (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2), 921-936.
- OECD Factbook (2009).
- Merton, R. K.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IL: The Free Press.
- Mincer, J., & Polacheck, S.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S76-S108.
- Orthner, D. K., & Pittmann, J. F. (1986). Family contributions to work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73-581.
- Park, J., & Liao, T. F. (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 chang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s*, 43, 571-589.
- Romis, J. C. (1987). *Caregiver strain: Toward a role theory perspective with social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39th annul scientific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Chicago: America.
- Ross, C. E., & Huber, J. (1985). *Hardship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Social Behavior*, 26, 312-327.
- Sei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2), 567-578.
- Smith, J., & Ward, M. (1985). Time-series of growth in the female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S59-S90.
- Quizon, E. K. (1978). Time allocation and home production in rural Philippine households. *Philippine Economic Journal*, 17, 62-87.
- Thoits, P. A. (197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1), 174-182.
- Williams, K. J., & Alliger, G. M. (1994). Role stressors, mood spillover, and perceptions of work-family conflict in employed parents. *American Management Journal*, 37, 847-868.
- Woodworth, R. S. (1934). *Psychology*, (3rd ed). New York: Henry Holt.
- <http://www.molab.go.kr>

접수 일 : 2010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09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3일